"교통사고 1위 오명 벗자" 광주 '범시민기구' 뜬다

시민운동본부 30일 출범

광주지역 민·관·정·재계가 '교통사고 전국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특히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통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어 지역 각계의 '의기투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범시민기구 30일 출범=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수년째 '교통사고 1위'에 머물러 있는 광주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시민운동 기구가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인사 20여명은 이날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광주 선진교통문화 시민운동본부'(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로 인해 실추된 광주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모임에선 김양균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박흥석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과 최영관 광주 YMCA 이사장 등 40여명의 각계 단체 대표인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키로 했다.

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영렬 광주지검장,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 19명을 명예고문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기구에는 대표로 참여한 단체의 산하단체 대표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단'을 두기로 했다. 또 지역 신문·방송사 대표 등으로 '홍보 계도지원단'을 꾸려 각각 기능을 분담토록 했다.

운동본부는 30일 오후 2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지역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광주 선진교통문화 시민운동본부'(가칭)는 16일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범시민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교통사고 1위 도시' 광주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통지옥' 멍에 벗나=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에 발벗고 나섬에 따라 광주가 '교통지옥'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광주의 교통사고율은 4년째 '전국 1위'의 오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6.4건으로, 전국 평균(105.4건)의 1.5배에 달한다.

또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도 568.8건으로 전국 평균(444건)에 비해 30% 가량 높다. "광주에서 무사고면 지구촌 어디서도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처럼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교통 인프라 취약과 단속 의지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시각에서 태동했다.

또 지난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마당에 '교통사고 1위'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는 점에 각계 인사들이 공감했다.

박영렬 광주지검장은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1위는 광주가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내세우는 '의향'이나 '예향' 등의 이미지와 전혀 딴판인 데다 도시의 장래 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며 운동본부 출범을 준비해 왔다.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김양균 변호사는 "이번에 출범하는 기구는 정치적 성향과 계층을 초월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개된 어떤 시민운동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진도군청 압수수색

사회복지비 횡령 의혹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회복지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진도군청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비를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 오전 사회복지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사회복지비 수혜자 명단 등 최근 1년간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인 탓에 횡령이 이뤄졌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며 "사회복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복지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첩보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숲 가꾸기' 뇌물 영광군 공무원 징역형

'숲 가꾸기' 등 각종 조림·육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조합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영광산림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 6급 공무원 오모(54), 박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와 박씨가 각각 뇌물로 받은 663만원과 230만원을 전액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과 군청 관계자들 사이에 뇌물이 오가면서 산림조합이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한 점, 오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영광군의 숲가꾸기 등 각종 조림·육림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전현직 계장으로 지난 2006년부터 각각 3천400만원과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오씨가 663만원, 박씨가 230만원을 받은 것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설계도면 공개 싸고 감사·대의원 주먹질

광주북부경찰은 16일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신사옥 건축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개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두른 감사 Y(60)씨와 대의원 L(53)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신사옥 앞에서 설계 도면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여부를 감정하러 온 대의원 L씨와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신사옥이 설계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며 감사인 Y씨에게 "건축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공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사장 동의서를 받은 뒤 광주 모 감정 회사 직원과 함께 감정을 하던 중 Y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한 차례 얼굴을 때리자 맞서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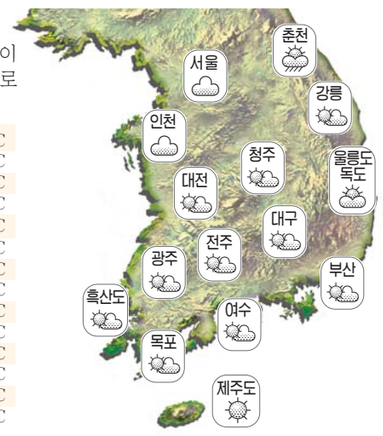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9분 달뜸 00시 44분 달짐 13시 49분

땅별

맑다가 오후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광 주	맑은뒤 흐림	19/31℃
목 포	맑은뒤 흐림	18/27℃
여 수	맑은뒤 흐림	18/24℃
완 도	맑은뒤 흐림	17/28℃
구 례	맑은뒤 흐림	17/31℃
해 남	맑은뒤 흐림	17/28℃
장 흥	맑은뒤 흐림	17/28℃
고 흥	맑은뒤 흐림	15/28℃
순 천	맑은뒤 흐림	18/28℃
영 광	맑은뒤 흐림	17/29℃
진 도	맑은뒤 흐림	18/28℃
전 주	맑은뒤 흐림	16/31℃
남 원	맑은뒤 흐림	16/31℃
흑산도	맑은뒤 흐림	17/24℃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24 21:13	01:28 14:11
여수	03:22 16:29	09:59 22: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날 씨						
최저/최고	20/30	20/28	20/26	20/27	19/27	19/29

빛고을CC 골프연습장 내일 개장

지난 10일 개원한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운영비를 지원할 빛고을CC골프연습장이 18일 문을 연다.

16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길이 160m, 75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공사를 완공했으며, 18일 개장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인근에 들어서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은 내년 초 개장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이 골프연습장과 골프장 등의 수익에서 매년 20억 원을 노인건강타운에 지원한다.

골프연습장 이용 요금은 정기권이 3개월 16만5천 원(60회), 5개월 42만 원(210회), 6개월 42만 원(180회)이고 하루 이용권은 20분 4천 원, 40분 7천 원, 60분에 1만 원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다.

16일 현재 500여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하루 1천3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전화 062-672-7400.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